

장성산 K-김치, 미국 입맛 사로잡는다

새벽팍김치 20톤 수출 선적식을 100만불 수출 목표 청신호 품평회 대상 이후 해외서 관심 "지역 발전 기여 노력 할 것"

대한민국 김치품평회 대상을 수상한 전라남도 장성군 농업회사법인(주)새벽팍의 '새벽팍김치'가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미국 LA 지역에 20톤 수출을 시작으로, 연내 100만불 수출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새벽팍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장성 나노산단 새벽팍 공장에서 김한중 장성군수, 김의병 새벽팍 대표, 김성현 세계김치연구소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LA 슈스위트유에스로 수출한 '김치(20톤) 선적식'이 진행됐



지난달 30일 장성군 나노산단 새벽팍 공장에서 미국 LA 슈스위트유에스로 수출한 '김치(20톤) 선적식'이 열렸다. 새벽팍 제공

다. 이번 수출은 포기김치, 매운불김치, 맛김치, 알타리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총 6만 달러 규모로 LA 현지 한인마트 10곳에 입점할 예정이다. 새벽팍은 2023년 제12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 대상 수상을 계기로 지난해 미

국 하와이 첫 수출을 성사시킨 데 이어 미국 본토인 LA 진출로 수출 판로를 확대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서도 추가 수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LA 수출은 연말까지 1-2달 간격으로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어서 올해 목표로 삼은 '100만불 수출'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새벽팍은 수도권 진출을 위해 경기도 화성에 제2공장 '농협회사법인(주)짚지식품'을 운영해 2024년 연매출 35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4월에는 전북 정읍 소성농공단지에 제3공장을 완공하며 올해 연매출 400억원을 목표로 세웠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상 기후로 농업 현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성산 K-푸드의 미국 시장 진출은 희망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새벽팍김치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의병 새벽팍 대표는 "새벽팍김치는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맛을 인정받은 제품이다"며 "앞으로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주)새벽팍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 장성군에 장학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역 영유아 아동시설 등에 김치 나눔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순천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이자 지원

오늘부터 접수...3000만원 한도

전라남도 순천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시, 연 5% 이자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정책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연 5% 이율로 대출할 경우, 연간 약 150만원, 2년간 총 300만원의 이자를 순천시가 대신 부담해주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운수업체,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이 해당된다. 2일 오전 9시부터 순천시 소상공인원

스톱지원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절차는 순천시 누리집(www.suncheon.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로 문의하면 된다.

대출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거쳐 농협, 국민, 광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 신청도 가능하다.

순천=배서준 기자



담양군 수북면 고성리1구 주민들이 지난달 25일 마을 주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무안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전라남도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3월 해제중학교를 시작으로

4월까지 관내 4개 학교 10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학급 단위 소규모 수업 형태,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이 해당된다. 2일 오전 9시부터 순천시 소상공인원

교육에는 전문 강사가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공지능 조작 영상 범죄 예방 등 최신 사례를 반영해 진행하고 있다.

군은 오는 9월까지 사전 신청한 관내 3개교 7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무안=김행연 기자

담양군 수북면 고성리1구, 마을 환경 정화 활동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고성리1구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나섰다.

1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고성리1구 노인회(회장 기형서)를 중심으로 주민과 면사무소 직원,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마을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화 활동에서 주민들은 마을 주변, 상습·고질적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 및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했다.

현장을 찾은 정철원 담양군수는 "마을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해 깨끗한 마을만들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힘찬

미래 더 큰 담양의 군정 구호에 걸맞은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명영 담양군의회의장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바쁜 시기에 정화 활동에 함께해 주신 노인회 어르신과 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담양만들기에 군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선미 수북면장은 "마을별로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매력적인 수북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담양=신재현 기자

장흥군, 내일 탐진강변서 '어린이 페스티벌' 개최

전라남도 장흥군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3일 오전 9시부터 탐진강변에서 '2025 장흥 어린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소방 및 경찰 체험, 로봇 축

구 체험, 생태 프로그램, 가족사진 찍기, 목공예 체험,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마술공연, 삐에로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마당놀이가 추가돼 새로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순천·광양, '산업위기 극복' 위해 협력한다

공동선언 채택... 5대 과제 추진

전라남도 여수·순천·광양시가 행정협의회를 통해 광양만권 주력 산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1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30분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광양만권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지역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3개 시의 공동 대응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행사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정기명 여

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3개 시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언은 최근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산업 위기 상황에 대해 3개 시가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산업, 일자리, 교통, 정주여건 등 전방위적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광양만권은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산 철강 덩핑수출,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전남 동부권의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이번 공동선언에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광양·순천 등 광양만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협력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재의 정착 여건 강화 △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친화적 산업환경 조성 △철도·도로·대중교통 연계 및 생활SOC 확충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의료관광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오는 2030년 전라선 고속화, 경전선 전철화 등으로 대도시권 인구 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개 시는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3개 시는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향후 정부 정책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전남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경제 공동체로 묶인 여수·순천·광양시의 이번 공동선언이 광양만권의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며 "이번 공동선언을 경제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특별자치단체로 구성해 나아가야 한다.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이 구상이 중앙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3개 시가 그간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각각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정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선언은 광양만권의 경제 위기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정부와 전남도, 3개 시가 함께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뜻을 담고 있다. 정부의 산업위기 지역 지정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광양만권이 맞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 선언은 지방정부 간 상생 모델로서 큰 의미를 갖는 만큼 행정구역의 뛰어넘는 도시 간 협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 배서준·광양 안영준·여수 이경기 기자